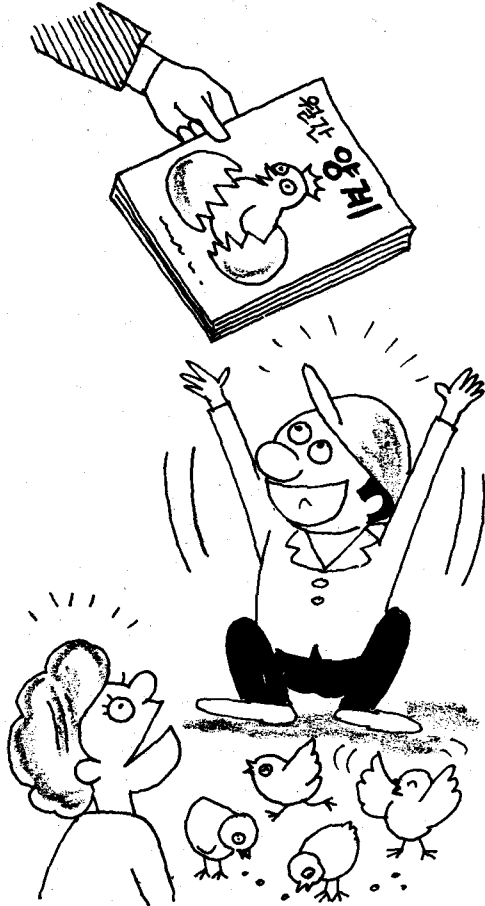


# 월간양계를 만드는

# 주역들...



날카로운 판단력 가진  
부화업계의 재사

편집위원장 김영환

부화업계의 재사로 일컬어지는 김영환사장이 월간양계와 판계를 갖은지는 상당히 오래 된다. 치밀한 성격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항상 우리나라 양계업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특히 세계각국의 양계전문지를 빠짐없이 구독하여 세계각국의 양계동향까지 훤히 내

다보는 식견까지 가지고 계시니 부러울 노릇이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천호부화장을 나와 현재는 수원에 신흥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는 氏는 이 불경기에도 일본에서 최신형 부화기(10만개규모)를 2대 도입 가동하고 영국으로부터 육용계 마야살 GPS도입을 준비하는 등 범인이 흉내내지 못하는 사업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한때는 양계관계 월간지를 발행할 개인적인 계획도 세웠으나 지금은 그 정열과 포부를 월간양계에 쏟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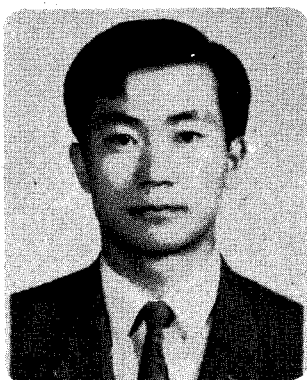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대한사료를 거쳐 천호부화장 전무를 역임하였다. 체중이 느는것외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낙천가로 톱툰히 소설을 읽고 우리 편집부 직원들과 영화도 같이보러다니는 부드러운 감

앞으로의 양계 경영의 성패가 대형화, 집단화됨에 따라 질병에 크게 좌우 될 수 밖에 없어 氏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금년부터 편집위원직을 맡게 된것도 질병문제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문제에 대한 원고를 일일이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는 자상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 박학다식한 양계기술의 중계탑

편집위원 김 인 식



외모에서 부터 우리업계를 달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아 알 수 있다.

서울대 농대 축산과 재학시부터 농촌운동을 시작한 농촌운동가이기도 하다. 이때 4-H운동관계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농촌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였다. 귀국후에는 서울식품(주) 농장에서 현장 생활을, 대성 미생물 연구소(주)에서 백신 및 동물약품 관계를, 퓨리나 코리아(주)에서는 기술 부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술 정보를 모두 소화하여 저력을 보임으로써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현재 퓨리나 코리아(주)의 농장장으로 미국의 사양관리 기술을 한국화하여 월간 양계를 통해 국내 양계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월간 양계에 씨가 쓴 원고는 5년후에 보아도 그보다 더 첨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등 항상 외국의 최신 과학 기술을 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월간 양계에 투고하고는 직접 독자들의 반응까지 조사하는등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로 잡지가 발행된후 10일이 지나도 독자들의 편지가 없으면 그때 부터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동물약품 양계 낙농 사료분야등 모든 분야에 너무 박식하여 인간 능력의 무한함을 깨닫게 한다. 최근 불황기에 농장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허리띠를 한칸 늘렸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월간 양계에 새로운 과학 기술 정보와 특수 사양관리에 대한 원고를 집필하고 있다.

## 날카로운 두뇌로 동분서주 활약하는

편집위원 김 정 인



월간 양계 출신 업계 중진중의 한사람이다 날카로운 두뇌의 소유자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가장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사료회사인 신촌사료(주)의 중역이 되어 젊은이들의 부러움을 독차지 하고 있다. 사료문제에 관한 확고한 일가견이 있어 氏의 원고가 게재 될때마다 관련 인사들은 그 원고를 받음 새워서라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최근 근무하는 사료공장의 신설 확장은 너무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사료분야의 전천후 인물이 되었다. 과거 월간양계에 잠깐 몸담고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일 해야할일등을 10

성조차 가지고 있다.

일반사양관리와 해외화제를 통해 매달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모두 아빠를 닮아 우량아이며 내조의 공도커서 웬만한 대외적일도 부인께서 처리한다.

## 무서운 추진력의 선천적 부화인

편집위원 강 세 춘



언제나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짧은 키, 딱 벌어진 체구에서 풍기는 것과 같이 한번 결심한 것은 무섭게 밀고나가 「불도저」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외모와 같이 다혈질 체질로 깊이 사귀지 않고 처음 대화하는 사람은 가끔 오해도 한다.

10년간 직접 초생추 판매를 담당해온 그는 초생추 판매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병아리 한 차를 싣고 나가면 거뜬히 판매하고 돌아오는 선천적인 부화인. 10년간 몸담고 있던 한일농원에서 독립하여 현재는 평택에 광일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다. 영국 토-스 농장 대리점으로 앞으로의 활동이 부화업계에서 주시되고 있다.

월간양계 편집위원회때 마다 가장 정확한 시장 정보와 전망을 하여 일반 양축가와 월간 양계가 밀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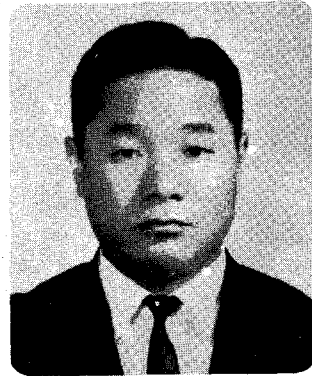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남단의 남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리에서 태어나 건국대

축산대 4기로 인산농원(주)을 거쳐 한일농원 창설 멤버로 활약했다.

과거 초생추 판매에 있어서 보여준 짜릿하고 아슬 아슬한 솜씨는 우리를 스릴마저 느끼게 하였다. 광일부화장에서 최고 경영자로서의 솜씨가 기대된다.

## 입무거운 계역연구의 베테랑

편집위원 김 순 재



외모에서 풍기듯이 우선 구수하고 서민적인 모습이 처음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한다.

서울대 수의대 출신의 수의사로 호주 영국 등에 유학하고 현재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연구관으로 주로 닭의 병독성 질병에 관한것을 담당하고 계시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질병이나 최근 유행하는 질병 때문에 업계에서 문제가 될때가 종종있다. 氏처럼 우리나라 양계업계의 질병은 정확히 아는 사람도 흔치 않을것이다.

우리가 가끔 너무도 답답한 것은 모든 것을 다알면서도 공무원의 신분 때문에 또는 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미소로만 대답할 때이다. 그러나 가끔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눈치빠른 편집위원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등 무거운 바위같은 입은 말 많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것을 배우게 한다

년이 지난 지금 편집부 직원에게 주문 하므로써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나 그 때문에 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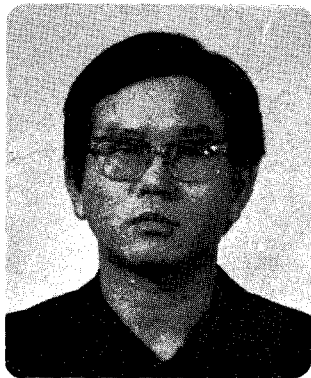
사료 공장에 근무하는 젊은 축산인의 모임인 가우회의 회장까지 맡아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는데도 체중이 점점 늘어나 고민이라고,

지난 여름 미국 일본과 구라과 지역의 사료 공장을 시찰하고 와서 부터는 월간 양계에 쓰고 싶은 원고가 많은데 회사일이 너무 바빠 쓸시간이 없는것이 고민이라고 한다.

서울대 농대 축산과를 졸업후 제일사료(주)와 당시 가금협회에서 견문을 넓힌후 신촌사료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혁명가적 기질 가진 육종농장의 실력자

편집위원 박 준 영



대개의 사람들이 돌다리면 안심하고 밟고 건넌다. 그러나 그중 지나치게 안전 제일 주의일 경우 두드려 보고 건넌다. 그러나 氏는 외모에서 풍기는 대로 돌다리는 귀찮게 두드려 보지않고 뛰어 넘는 성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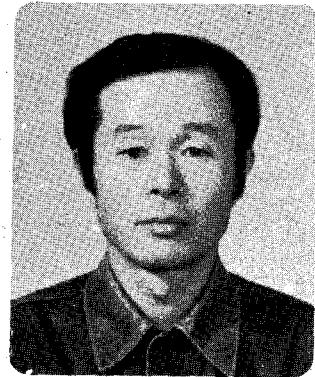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제일 앞장서서 개혁하려는 혁명가적 기질이 많은 氏는 벌써 10년전 도계유통에 손을 대었고 한참 단백질 자원이 부족하여 사료 품질이 나쁠때 수산대학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낙동강 백사장에서 어분을 생산하기도 하는등 범인과는 생각하는 점이 너무도 다른 점이 많다. 이제 한협이라는 국내 최고의 육종농장의 실질적인 실

력자가 되고는 78년 세계 일주를 통하여 선진 후진국의 양계장과 유통구조를 모두 시찰하고 귀국한후 최근에 또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협 협력회와 코브협력회 조직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양계업계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통인 氏가 월간양계의 주 정보 공급원이다. 최근에 도계장외에도 종계 수출을 위한 준비에 한참 바쁘다.

항상 앞서가는 두뇌는 우리 업계가 미처 따라가지지를 못하였으나 이제 그 경륜을 펼시기가 온 것 같다.

## 의리파이고 정의파인 부로일러 분야의 독보적존재

편집위원 신 정 일



초창기 월간양계 광고를 위해 허름한 돈가방을 들고 업계를 누비던 순 경상도 울산 토박이로 일본 막부시대의 도구가와 에이야스를 흠모하는 순 100%의리의 사나이로 통하고 있다. 그후 양계협회 검정소장으로 현장 근무를 거쳐 유일농원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한지 3년만에 오늘의 유일을 만든 신화의 사나이이다. 춘하추동 청바지 차림으로 비교적 큰 키인데도 굵높은 붉은 구두를 신고 장발을 날리고 다니는 멋쟁이로 무교동에서는 국산 아랑드롱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미남이다.

ROTC장교로 월남전에 중군하여 최전선에

서 생사를 초월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氏는 지금도 무슨일을 맞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품은 주위에서 크게 인정하고 있다. 건국대 축산대 4기 졸업으로 강세춘 편집위원과 동기이다.

의리와 정의파로 알려지자 지난 총회때는 협회 감사직을 맡게되어 집행부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었으나 편집부에는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부로일리에 관한 깊은 연구로 이분야의 독보적 존재가 되었으며 하고 싶은 말은 하고야 말며 업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십자가도 지겠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월간양계에 칼럼을 한편쓰기 위해서는 버스안이나 지하철 안에서나 화장실, 밥먹으며 1주일 이상 구상을 하다 모든 만물이 잠든 자정이 넘어서야 펜을 잡는다는 괴벽의(?) 소유자로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어 다 학교에 보낸후 부인이 심심할것 같아 작년에 또 득녀하는등 세심한 곳까지 가정에 신경을 쓰는 애처가 이다.

## 해박한 지식의 人間컴퓨터

편집위원 신 정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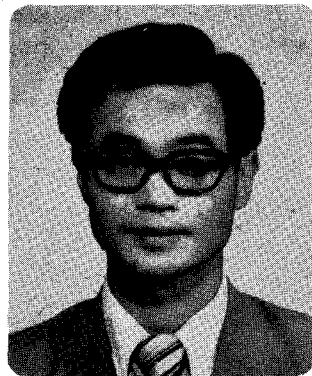


창간호부터 10년간 편집위원으로 이제는월간 양계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양계를 비롯한 동물약품업계 축산업계 사료업계 뿐만아니라 일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은 자연

우리 업계를 더 높은 차원에서 관찰 할수 있게 하여 氏의 판단은 항상 정확할 수 밖에 없는 인간 컴퓨터로 불리워지고 있다. 월간 양계가 발행되면 당일로 목차부터 편집 후기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광고까지 다 보는 정열은 감히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다. 특히 다른 국내의 축산지와 비교하여 편집 기획에 잘못된 점을 고쳐줌으로써 오늘의 잡지를 만드는 주역할을 하였다. 사대 부고를 거쳐 서울대 농대 생물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후 동물약품업계에 투신하여(한국비타민 헤드쿼터스(주) 기술부장, 양계 협회이사) 이 업계에 15년을 몸담고 있으며 SF과학사료를 창설한 후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도 하였다. 판단력이 정확하며 적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성격, 작년부터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 안경을 쓰기 시작 했으며 식사는 생선 고기등 육식을 위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시작 10분 전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관념만 보아도 얼마나 그 생활이 철두 철미한가를 알 수 있다. 구태어 단점을 든다면 너무 빈틈없는 것 정도이다.

## 현장경험과 실력겸비한 곧은 성격의 獸醫師

편집위원 원 송 대



서울 산업대 수의과를 졸업한후 한국카아길(주)농장장으로 양계에 관한 현장 경험을 시작하므로써 필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수의

사가 되었다.

대성미생물(주) 중앙약품 등에서 백신이나 동물약품에 대한것을 충분히 익혔고 미국 대만 일본 등지의 양계 양돈 분야를 넓게 시찰하고 돌아왔다. 카터 대통령이 모든 공직은 버려도 주일학교 반사직은 계속하겠다고 하였듯이 氏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요일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다. 지난 9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수의과를 졸업하여 석사가 되었다.

짧은 검은 안경테 속으로 쉬지 않고 닭의 질병에 대한 책이면 읽어 치우는 독서광이다 가장 부지런한 수의사중의 한사람으로 가장 많이 야외에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氏가 지도하는 여러가지 방역 프로그램등은 소위 업계에서 원숭대설로 통하고 있을 정도이다.

강한 면과 약한면을 다 겸비한 氏가 야외에서 직언 하는것이 가끔 피해자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나 이런것이 모두 그의 숨김없는 곧은 성격 때문임을 주위에서는 알고 있다. 지역 양계인이 모인곳이면 어느 곳이고 찾아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한 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양계인 氏에게서 언젠가는 터져 나올 삼천리 양계장 방문기를 기대하여 본다

## 어려움에도 여유 잃지않는 월간양계의 안테나

편집국장 노 영 한



양계업계의 제갈공명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노영한 국장이 우리 월간양계의 파이럿트 역할을 맡은지 만 2년 - 2년전보다 더 넓어진듯한 앞 이마의 면적이 그간의 꾸준한 노고를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思孝型, 그와 몇마디를 나누면 벌써 양계업 전반에 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 접하게 된다.

사실 조금은 잡다한 듯이 편집되던 월간양계의 내용이 노영한 국장이 편집책임자를 맡은 후로 우리나라 양계업계의 현황과 비전을 질서 정연하고 짜임새 있게 엮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노영한 국장이 심혈을 기울여 매월 집필하는 "안테나"는 변화하는 양계업계를 폭넓게 그리고 알찬 내용을 담고 있어, 책을 만들때마다 자랑스럽고 흐뭇한 마음을 갖게한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여유를 잃지 않고 게다가 칼같은 조크를 빼놓지 않아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해주는 노영한 국장은 청주의 명문가출신으로 청주고, 충북대 축산학과를 나온뒤 중축장을 거쳐 대한양계협회로 입사 닭 경제능력 검정소에서 실무를 익힌후 계속 협회에 몸담아 업계의 어려운 일은 도맡아 처리해온 업계의 보석같은 존재. 시종 침착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노영한 국장은 가족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동양화를 전공해 가끔 월간양계 목차화에서 솜씨를 보여주는 부인과의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있다.

## 타고난 편집인이며 女獸醫師

편집부 안 남 신

사대부고 재학때 부터 교지 편집을 맡아왔고 서울 산업대 수의학과 재학중에도 대학신문 편집장을 맡아 학과 공부보다도 학보 발간에 열을 올리던 편집을 위해 태어난 타고난 편집인이다. 물론 학과 공부를 등한이 한 것은 아니어서 농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수의사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몇명 안



## 다재다능하고 말은 일 끝까지 밀고나가는 건실한 성품

편집부 남 두 희



되는 여수의사로 소위 말하는 회귀종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졸업후 전공과 취미를 살려 월간양계 제작을 맡게 됨으로써 갑자기 월간양계가 달라지기 시작하여 양계업계를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말이 여자이지 일은 남자 10명분은 약간 과장되고 5명분을 해내는 슈퍼우먼(물론 봉급은 1인분만 받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 원고 청탁이 한번 나가면 아무리 바빠도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 하는 비법의 소유자이며 인쇄소에 원고가 넘어가면 성격을 아는 인쇄소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일을 중단하고 월간양계부터 하게 마련이다.

월간양계 외에도 한국양계와 원색질병전서를 작년에 발간하였고 특히 원색질병전서발간에는 수의사인 Miss안이 아니면 발간이 불가능 하였을 정도이다.

원색질병 전서가 다행히 초판이 매진되고 재판까지 매진 되므로써 이것이 바로 베스트셀러라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때 기일내 책을 만들기 위하여 밤을 새우곤하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창간 10주년 기념 부록을 만들기 위하여 한 달간의 야근과 파로로 몸살이 난것을 독자는 모르겠지만 숨은 노력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 아직 미혼이다.

정감있는 목소리와 웃음을 잃지않는 친품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감을 받고 있는 남 두희씨는 중앙고를 거쳐 건국대 축산과를 졸업후 곧바로 양계협회 편집부로 입사하였다.

처음 입사할 때 갖 졸업한 뜻나기가 잘 해낼까 하던 걱정을 근무하던 첫날부터 국내에서 광고가 가장 많은 월간양계의 광고를 혼자 모두 감당해내므로써 일축시켜버렸다.

착실한 크리스찬이며 수영등 만능 스포츠맨이며 사진실력도 프로급으로 다재 다능한 양계업계의 젊은 일꾼이다.

월간양계에 들어와 너무 바빠서 아직도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가끔 항의(?)를 하지만 일단 말은일은 끝까지 완결을 하고 마는 성미다. 광고를 맡고부터 잡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광고도안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가끔 한눈을 팔때도 있으며 업계뉴스와 협회 소식을 말으면서 업계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해야 하는등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다. 입사 1년 4개월 밖에 안되지만 가장 업계를 정확히 넓게 파악함으로써 동료들은 물론 선배들까지도 업계의 장래에 대해서 자문을 청할 정도이다.